

경산지역 새싹불자 '쑥쑥 커요'

청도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 개원...신입생 125명 입학

경북 경산지역 새싹불자들을 위한 운문유치원이 3월 4일 문을 열었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운문유치원은 4일 열린 개원식 및 입학식에서 125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가 1999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온 운문유치원은 지역 유치원연합회의 건립 반대로 개원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2006년 경산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착공해 1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

운문유치원은 2000여㎡(약 600평)의 대지 위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유치원은 5학급 125명 규모이고, 유아반은 만 3세반(아란반) 4세반(가솔반·수보리반) 5세반(사리불반·복련반)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외에 명상, 다도, 사찰음식, 예절교육 등 사찰문화를 배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더해 인성교육에도 만전을 기했다. 또한 1~2월에는 사찰 참배를 실시해 불교 기본 의식 및 예절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생태학교실을 열어 자연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바른 생각 맑은 마음 밝은 지혜"를 원훈으로 삼고 있는 운문유치원의 원가(園歌) '운문유치원의 노래'도 눈길을 끈다. 고은 시인이 작시하고 피아니스트 임동창씨가 작곡한 원가는 '초롱초롱 빛나네 어려둥둥 신나네 운문의 어린이들 너랑 나랑 뛰노네...여기가 우리들의 운문의 집 여기가 부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가사와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이뤄져 있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은 "어린이불자 양성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아이들의 밝고 맑은 심성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문유치원 안무



3월 4일 열린 운문유치원 개원 및 입학식 모습.

영 원장도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통해 유아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 지역교육기관과 함께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식에는 운문사 승가대

학장 명성 스님과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경산교육청 김우현 교육장, 이수경 교수(동국대 유아교육학과) 등이 참석했다.

손병현 대구지사장

지역복지 꽃피우는 '예술의 힘'

고창사회복지관 복지기금 마련 예술전시회 개최

전북 고창지역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이) '제1회 복지기금 마련 예술전시회'를 개최한다. 3월 17~28일 복지관 내 2층 상설전시관과 대강당에서 '예술이 복지 구름을 일으키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고창노인복지센터 송영서비스 차량 마련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의 작품과 함께 지역사회 중진작가들의 작품 약 120점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광 스님과 석정·범주·성수·원담 스님 등 불교계 대표적인 선사들의 선사화(禪書)와 정비파·여태명·손숙희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도 할 수 있어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종교를 뛰어넘어 이해인 수녀의 글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무궁이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사회에서 서예·문인화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작품도 대거 전시될 것"이라며 "조건이 열악한 지역 행사지만 고창 노인복지가 활성화되고 지역복지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고창군노인복지관, 고



범주 스님의 달마도

창군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지난해 9월 7일 개관했으며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법만)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063)563-0009

김강진 기사

"태고종 사찰로 삼사순례 가요"

육천 대상사 주관...태고총림 선암사서 첫 법회

태고종 사찰인 육천 대상사(주지 혜철)가 종단에 대한 이해와 애증심을 높이기 위해 종단 소속 사찰을 참배하는 삼사순례법회를 기획해 눈길을 끈다.

대상사 주지 혜철 스님은 "그 동안 삼사순례라고 하면 으레 유령 관광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태고종 사찰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수려한 경관을 가진 사찰들이 많아 이들 사찰을 대상으로 삼사순례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첫 법회는 3월 4일 태고총림 선암사와 마이산 탐사, 남원 관음사를 참배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삼사순례는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각 순례 사찰에서 법회를 봉행한 후 주지스님에게 참견 설화와 사찰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를 마련해 사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각 순례지에 불사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관음사 주지 청암 스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까지 순례를 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순례를 통해 유령사찰 뿐 아니라 지역의 작은 사찰도 부담 없이 참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혜철 스님은 "종단에 소속된 사찰을 참배함으로써 애증심을 높이는 한편, 불사에 작은 도움이나마 보탬으로써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장경설화 및 문화재를 간직한 태고종 사찰을 대상으로 순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손효선 기사

선암사 신임주지 진산식

혜초·운산 스님 등 참석

태고종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신임주지 경담 스님 진산식이 3월 2일 봉행됐다. 진산식에는 방장 혜초 스님을 비롯해 선암사 조실 혜운 스님, 회주 금용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 이용호 국회의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마음을 지녀 위로는 부처되기를 발원하고 아래로는 선암사 사부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합과 보살행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예천불교인 웃놀이 한마당

제9회 예천 지역 불교인 웃놀이 한마당이 3월 2일 소백산 운문사주지 청안에서 펼쳐졌다. 예천불교사암연합회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예천지역 스님들과 정재계 인사, 불자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운문사 주지 청안 스님의 개회사와 사암연합회장 인사말로 진행된 1부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웃놀이 가 마련됐다.

박영애 영주지사장

화면에 손만 대면

조계사 한눈에 '쑥'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가 경내에 사찰 안내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설치해 참배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터치스크린은 화면에 나타난 문자나 특정 위치에 손을 대면 저장된 정보가 나타나는 시스템이다. 조계사에 설치된 사찰 안내 터치스크린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사찰 소개와 행사 법회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조계사는 앞으로 사찰 안내 터치스크린에 인사동 등 사찰 인근 관광 안내 정보도 수록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된 안내시스템은 국내 법치회사인 웨이비비전이 협찬 제공한 것이다.

여우령 기사

"어려운 이웃에 자비의 손길을"

무각사 '자비봉사단' 발족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가 3월 1일 봉사모임 '자비봉사단(단장 조은미)'을 창단했다. 자비봉사단은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1일 열린 발대식에는 청학 스님과 광주자원봉사센터 송봉남 센터장과 자원봉사자 60여 명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학 스님은 창단사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자비 정신과 보현보살의 큰 실천을 본받아 행동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

자"며 "이제는 불자들이 모범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창단 의의를 밝혔다.

이어 송봉남 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단은 발대식에 이어 5·18광주시민공원 청소봉사를 전개했다. 무각사 자원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인 자원봉사 교육과 함께 광주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제포교사회 지부 창립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대구경북지부(회장 우성연)가 2월 23일 대구 한국불교대학 관음사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국제포교사회의 지부가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성연 회장은 "앞으로 지부에서

불교경전 번역사업을 비롯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불자를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회에는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과 국제포교사회 강령성 회장, 부평 미안마 선원 우소다사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부 창립을 축하했다.

손병현 대구지사장

한국 대승불교 실천연합 제 2차 정기총회 (구 부산불교 뉴-라이트 연합)

귀의 상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습니다. 한국 대승불교실천연합 정기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수회 동참 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宣 言 文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외면한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엇이 진실한 가르침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데카르트와 뉴턴이 드러낸 위대한 인류의 지성은 오늘날 서구문명의 기반이 되어 기독교와 함께 이 땅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었다. 찬란한 로마문명을 파괴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불교내에서도 이런 서구적인 행복론이 수용되어 이제 제법 커다란 獅子身蟲이 되어 버렸다. 많은 佛子들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뚤어도 이를 바로 해야 할 善知識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에 따른 가치관이 이 땅에 가득히 넘쳐나게 될 때까지, 大乘佛敎 中興을 위하여 出家와 在家가 합심하여, 四部大衆이 합심하여 일 하였다.

부처님이 涅槃에 드신지 벌써 2500 여년이 지났다. 부처님의 正法은 보이지 않고 末法時代의 조짐만이 보일 뿐이다. 이기적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末法時代가 바로 지금 이 땅에 도래한 것이다. 그것은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사이에 듯한 왜란과 호란이 겹쳐져서 끝내는 地獄과 같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지옥은 이어졌다. 오늘날 선진 대열에 합류하고자 모든 국민이 열망하지만 아직 나라는 후진대열에 서 있다.

정치인이 그렇고 경제인이 그렇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 종교도 철학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 순수한 희생으로 대기업이 형성되었으면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 정치는 경제를 그렇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 정치인과 경제인을 국민은 믿고 따르는 것이다. 종교와 철학도 정법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부처님이 오신다 한들 모두 외면하고 멀리 할 것이다. 아예 부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쓰레기가 쌓인 곳에 바퀴벌레가 모이듯이 이 땅에는 惡魔의 軍團이 넘실거린다. 이에 우리는 일어선 것이다.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불국정토를 이루어야 한다고 發願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如來의 거룩한 誓願을 믿고 따르는 佛子가 되어 만종생이 正定聚가 되어 歡喜하며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진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 있다면 그는 바로 大乘行者일 것이다.

우리는 이에 <大乘佛敎實踐聯合>의 탄생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佛紀 2552년 3월 19일

◆행동강령

- 1) 삼보호지: 우리는 불·법·승 삼보를 호지한다.
- 2) 생명존중: 우리는 유정 무정 모든 생명체를 존중한다.
- 3) 불교문화: 우리는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지킴이가 된다.
- 4) 불국정토: 우리는 불국정토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한다.

◆임 원 진

상임대표 唯心成道(스님)

공동대표 강동균(교수) 혜련(스님) 보리(스님) 김연숙(기업인) 권승철(기업인)

감 사 한영동(금융인) 안달갑(전공무원)

고 문 법일(스님) 지공(스님) 보각(스님) 이영재(육영사업) 이영구(방송인) 임채수(법사)

자 문 화엄(스님) 삼주(스님) 대광(스님) 원덕(스님) 해운(스님) 덕림(스님) 법정(스님) 혜정(스님) 송용기(법사)

오주영(교수) 이상복(병원장) 허종범(변호사) 변계원(학원장) 박필순(꽃예술가) 현동림(여협업) 오동림(귀금속업)

지 도 영명스님 도정스님 용운스님 임태환(승복전문가) 백련화(화가) 박만식(기업인) 박영식(호텔업) 천성엽(기업인) 안태봉(시인)

강철우(전공무원) 김철수(해양업) 양형태(전공무원) 이은정(서예가) 이준순(주부) 박은자(꽃예술가) 유진갑(미용전문가)

최승배(차량정비업)

운 영 위 원 장 박현철(토건업)

불교문화위원장 송재근(교수)

포 교 위 원 장 이상범(교수)

사 무 처 장 박규보(교수)

국제교류위원장 오주영(교수)

사회실례위원장 현동림(여협업)

청 소 년 위 원 장 박상욱(기업인)

사 무 국 장 손동철(건설업)

법제위원장 허종범(변호사)

교육위원장 구자상(교수)

여성위원장 김호정(포교사)

총 무 국 장 박은비(주부)

◆행사안내

· 일 시: 2008년(불기 2552) 3월 19일 수요일 저녁 6시

· 장 소: 부산역 새마당 웨딩 2층 특실

· 식 순: 제 1부 법회 | 제 2부 공양 | 제 3부 형제결연식

· 연락처: 사무국 051)468-5657 (총무국장 박은비 017-566-4504) / 팩 스 051)442-5659 / 홈페이지 http://www.bbnr.or.kr

* 화환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